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③	5. ④	6. ①	7. ③	8. ⑤
9. ⑤	10. ⑤	11. ①	12. ④	13. ②	14. ⑤	15. ⑤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③	21. ③	22. ④	23. ③	24. ④
25. ④	26. ⑤	27. ①	28. ⑤	29. ③	30. ⑤	31. ②	32. ②
33. ③	34. ④	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①	46. ①	47. ④	48. ③
49. ②	50. ③	51. ⑤	52. ④	53. ⑤	54. ③	55. ④	56. ④
57. ③	58. ⑤	59. ①	60. ②				

[듣기 대본]

[1] 이제 여러분은 '일기 예보'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도 전국을 뒤덮은 황사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날씨였습니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발생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오늘까지 계속되었지만, 내일부터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반기는 가운데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에도 별다른 구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나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영상 8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 동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만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출제 의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이 예보에 의하면 '내일' 날씨는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낮 기온이 22도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옷을 두껍게 입으라는 말을 추리하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추리할 수 있다.

④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부터 추리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한국 영화'와 관련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들어 '뭐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군.' 하고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우리 영화는 소재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방대해졌습니다. 블록버스터만은 할리우드의 전유물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쉬리'와 '무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영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만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한국 영화를 외면했던 영화팬들이 이제는 먼저 찾을 정도로 우리 영화계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이어져 오던 한국 영화계의 흐름에 '조폭 영화'라는 새로운 물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흥행 면에서 다른 영화보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문화적 요소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소재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때리고 부수는 폭력물이 넘쳐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흥행의 성공이 웅변하듯 최근의 '조폭 영화'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세태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조폭 영화'들은 이러한 세태의 흐름을 잘 읽어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우리 영화를 다시 과거로 뒷걸음질치게 했습니다.

2. **[출제 의도] 개괄적 정보의 확인**

먼저 한국 영화가 소재면에서 다양해지고 규모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칠어져 가는 우리 사회의 세태를 반영해 주고 있는 '조폭 영화'가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우리 영화의 수준을 뒷걸음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의 내용 중에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했다는 진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령 : 형철아, 기가 막히지 않니? 어쩜 그럴 수 있어?

형철 : 어이구, 오늘은 또 누가 우리 기령 양을 화나게 했나?

기령 : 너 힙합 그룹 애니씽 좋아하지? 순전히 립싱크였대, 글쎄.

형철 : 그것 때문에 흥분한 거야? 야, 애니씽이 원래 격렬한 춤을 추잖니? 너 같으면 격렬하게 춤추면서 노래부를 수 있어? 그렇다고 춤을 안 출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

기령 : 그 정도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애니씽에서 얼굴 예쁜 언니 있잖아. 자기 목소리가 아니래요, 글쎄.

형철 : 뭐라구? 그게 무슨 말이야?

기령 : 애초에 기획사에서 그룹을 결성할 때 일단 얼굴로 관심을 끌려고 그 언니를 영입했나 봐. 그런데 노래가 잘 안 되니까, 노래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들려 주고 그 언니는 립싱크를 한 거야.

형철 :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누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대?

기령 :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매니저에게 거듭 물었는데, 그 때마다 매니저가 '네 목소리가 맞다. 코러스가 깔리고 목소리가 덧씌워져 그렇다.'라고 했다는 거야.

형철 : 말도 안 돼. 요즘 연예 기획사들, 문제가 있어. 순전히 자기 회사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팬들을 우롱한 거잖아.

기령 : 돈벌이에 급급한 연예 기획사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니? 그런 기획사들도 문제지만, 나는 방송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 어린 가수들의 현란한 춤 동작으로 10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속셈이 아니고 뭐겠냐구? 팬들이 더 이상 거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돼. 무대가 실력 없는 가수들의 댄스 경연장은 아니잖아.

3. **[출제 의도] 화자의 입장 파악**

형철이가, '요즘 연예 기획사들, 문제가 있어. 순전히 자기가 회사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팬들을 우롱한 거잖아.'라고 말한 데 대해, 기령이가 '돈벌이에 급급한 연예 기획사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니?'라고 하여 동의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⑤는 기령이의 입장이다.

[4] 이번에는 시민 마라톤 대회 하루 전에 열렸던 코스 설명회의 일부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뛸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 문화 회관 앞에서 출발하여 5km 지점에 이르면 오르막이 나타납니다. 호흡은 입과 코로 동시에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산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어야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겠죠. 7.5㎞ 지점에 있는 물 스펀지로 땀이 나기 시작한 목과 얼굴을 닦아 주면 기분이 새롭습니다. 10km 지점인 종각 부근에서 15km 지점까지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이 때쯤이면 근육이 풀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죠. 이 때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페이스가 빨라질 수 있는데, 오버 페이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20km 지점에 음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을 지날 때 약간 목을 축일 정도로 수분을 보충해 주십시오. 30㎞ 지점에서는 영양 보충식으로 초코파이와 바나나가 제공됩니다. 20~30km 코스는 평탄한 구간입니다. 탁 트인 한강물을 가로지르는 잠실대교 구간, 강바람이 시원하고 길도 넓고 곧게 뻗어 있죠. 힘은 계속 70%만 쓰며 달리십시오. 아직 힘을 비축할 때죠. 마음 한 구석에 '에라, 그만두어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30㎞에서 골인 지점까지도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약간의 오르막인 35km 지점에서는 상체를 15도 정도 숙이고 달리는 게 좋습니다. 39㎞ 지점인 학여울역은 그 옛날 백로, 왜가리 같은 철새가 모여들어 무리를 이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제는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승선이 있는 잠실 주경기장이 보일 것입니다. 마음껏 온 힘을 다해 달려 보십시오.

4. **[출제 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10km 지점에서 15km 지점까지의 완만한 내리막길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오버 페이스'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20~30km 코스의 평탄한 구간에서도 '힘은 계속 70%만 쓰며 달리'라고 한 설명에 주목해야 한다. 설명 내용 중, 전력으로 질주해 보라고 권유한 것은 '결승선이 있는 잠실 주경기장'이 보이는 지점에서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세종 문화 회관 앞에서 출발하여 5km 지점에 이르면 오르막이 나타납니다.' 부분을 참조한다.

④ 20km 지점에 음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점에 착안한다.

② 물 스펀지는 7.5㎞ 지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영양 보충식은 30㎞ 지점에서 제공된다.

[5~6] 이번에는 기자와 전문 바둑 기사와의 방송 대담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 : (시그널 음악)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바둑판에서 최고수로 군림하고 있는 이정석 9단, 그는 17세 때 처음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강자들의 욕망이 칼날처럼 맞부딪치는 세계 바둑계를 완벽하게 석권해 온 이정석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바둑계의 최고수 이정석 9단을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李 9단께서는 처음 만난 상대에게는 약하지만 두 번째 대국부터는 승률이 높다고들 하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정석 : 대개 상대는 저를 잘 알고 있고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두 번째 판에서는 저도 상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부하기가 좀더 편안해질 뿐입니다.

기자 : '돌부처'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데, 평소 심리적 안정을 위해 따로 정신 수양을 하시나요?

이정석 : 저는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입니다. 마음 속으로는 괴롭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다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기자 : 바둑은 곧잘 전투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중시되고, 느린 바둑은 당연히 기피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李 9단은 그 느린 행마(行馬)로 어떻게 스피드 있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석 :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둔한 수를 잘 두고, 그 때문에 초반엔 자주 밀리곤 합니다. 그러나 느림에도 가치 있는 느림이 있는데, 그것을 터득하면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 :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최신수 9단의 능란한 임기응변은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김고수 9단의 실전 능력은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원천이며, 李 9단의 바둑엔 고요함이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빠른 스피드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정석, 그는 '느림'으로써 참을성이 부족하고 지루함을 못견뎌 하는 현대인에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끈끈한 인내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시그널 음악)

5. **[출제 의도] 화자의 태도 파악**

대담 중에 어려운 용어 자체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용어를 해설하고 있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② 17세 때 처음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 10년 동안 세계 바둑계를 완전 석권한 사실, 처음 만난 상대에게는 약하지만 두 번째 대국부터는 승률이 높다는 사실, '돌부처'라는 애칭, 李 9단의 바둑엔 고요함이 깔려 있다는 평가 등.

③ '인생의 축소판', '강자들의 욕망이 칼날처럼 맞부딪치는 세계 바둑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등.

⑤ '저는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입니다. ~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 초반엔 자주 밀리곤 합니다.' 참조.

6.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두 사람의 마지막 발언을 분석하면, 이정석 9단 바둑의 특징은 '느림'으로 이해되고, 그 '느림'이 능히 '빠름'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스피드가 중시되고, 느린 바둑은 당연히 기피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 상황에 비해 역설적으로 이해된다.

7. **[출제 의도] 어법에 맞게 표현하기**

③에서 '친구야말로'는 주어인 '친구는'을 강조한 표현이므로 이 문장은 주어(친구야말로)와 서술어(동반자야)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또한 서술어에 체언(동반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앞에서 관형절이 꾸며 주는 구조이므로 어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경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일 수는 없으므로 '지금 들어왔어요'라고 써야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②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잘못된 문장이다. '반드시'는 긍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므로 이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는 '절대로'를 넣어 주어야 한다.

④ 쉼표의 위치에 따라 '한결같이'가 꾸며주는 말이 달라져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문장이다. '한결같이'가 '어려운'을 꾸며 주는 경우에는 '어려운' 다음에 쉼표를, '돕는'을 꾸며 주는 경우에는 '어려운' 앞에 쉼표를 넣어 주어야 한다.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 문장이다. 주어를 '극문학은'으로 고치든지 서술어를 '두 가지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8. **[출제 의도] 주제의 구체적 연상**

방송반의 아나운서 모집에 지원하는 글을 마무리 할 때 아나운서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직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9. **[출제 의도] 개요의 구체화**

'효용'이란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유용한 점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풍요로운 정신 생활, 인격의 수양, 지식의 축적, 삶의 간접 체험 확보 등은 독서의 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창작 의욕을 북돋운다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경우에, 그것도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독서의 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출제 의도] 시각적 자료를 통한 연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며, 그 상상의 결과가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만화에서 나타난 것은 다리 한 쪽이 부러져서 사용할 수 없는 두 개의 의자이다. 이 의자는 소용 가치가 없어서 버리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다리 한 쪽이 부러진 의자를 하나씩 가진 아롱이와 다롱이는 의자를 버리기 전에 발상의 전환을 한다. 각각의 의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두 의자를 서로 이어 새로운 의자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의자는 서로의 부족함이 합쳐져 온전해질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남을 돕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상상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느 한 쪽이 도움을 주고 다른 쪽이 도움을 받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11. **[출제 의도] 의도에 맞게 표현하기**

<보기>에는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 동창회에 나가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①이다. 1행과 2행에서는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행에서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동시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2. **[출제 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여럿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든지'를 쓰고 과거 일을 회상할 때는 '-던지'를 쓰므로, ④에서는 '고마웠던지'로 쓰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를 '고마웠든지'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17) 민경배, '대중 매체의 두 얼굴' (사회 지문)**

13. **[출제 의도] 중심 내용의 파악**

이 글 본문의 문단 구조는 대중 매체의 순기능, 역기능을 열거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에는 대중 매체가 문화면에 끼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문화 수용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렸다는 것이고, 역기능으로는 이로 인해 개성과 취미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의미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언급은 없다.

14. **[출제 의도] 관용적 표현에 적용하기**

대중 매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수용자가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수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동일한 것일지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약(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독(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화합할 수 없는 사이를 나타낸다.
② 숨은 인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의 의미이다.
④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간을 말한다. 선한 외면 속에 악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다.

15.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뒤의 부연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중 매체가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회사와 노조의 양측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결국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모습이다.

[오답 피하기]

②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이다.
④ 갈등을 제시하기보다 여론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16. **[출제 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소식을 널리 알리다'는 '보도(報道)'의 의미이다. 호도(糊塗)는 '어물쩍하게 넘겨버리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문맥에서도 '특정 정파의 정치적 견해만을 대변하여' 결과적으로 민주 정치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보아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출제 의도] 독자의 반응에 대한 평가**

글쓴이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중 매체 수용자의 비판 의식이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본문에서 지적한 대중 매체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글쓴이는 대중 매체에 대한 거부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인다는 행동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나머지 답지들은 대중 매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8~22) 현진건, '고향' (현대 소설)**

18. **[출제 의도] 구체적 정보의 확인**

기차 안에서 만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 처녀'와 다시 만났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녀와 가정을 꾸미려 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는 그녀를 만나 우동집에서 정종만 따라 마시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⑤는 주어진 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19.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비판**

제시된 작품에서 '나'는 관찰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을 전달해 주며 '그'의 처지에 동정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가지고 수행 평가를 위한 발표 계획을 세운다면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간도나 일본으로 떠돌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당시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를 통해 엿볼 수 있다.

20. **[출제 의도] 관용적 표현의 이해**

㉠에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과 더 참혹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심정이 함께 나타나 있다. 이런 상황과 심정을 고려하면, 뒤에 이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속담은 ③이다.

③은 이왕 그릇된 일을 생각하여도 쓸데없다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겉만 좋고 실속은 없음을 일컫는 말.

② 눈앞에 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 변통을 뜻하는 말.

④ 아무리 하여도 끝이 없고 노력한 보람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말.

⑤ 견문이 좁은 사람을 일컫는 말.

21. **[출제 의도] 표현 방식의 파악**

㉡에는 일제 당시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좋은 농토가 신작로가 되는 일, 일본에 불만을 말하던 사람들이 모두 감옥으로 끌려 갔던 일, 얼굴 예쁜 여자들은 가난 때문에 팔려 가고 말았던 일 등이 산문으로 서술되는 것보다는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22. **[출제 의도] 말하기의 장면 추리 · 상상**

<보기>에는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설명되어 있다. ⓐ~ⓔ의 말하기 상황을 비언어적 표현이나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상상하여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한다. ⓓ에서 '나'는 '그'의 상황에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은 '동정 어린 얼굴 표정'이다.

*** (23~27) 현대시**

(가) 정지용, '유리창', (나) 백석, '여승', (다) 김종길, '성탄제'

23. **[출제 의도] 독자의 태도 추리**

(가)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과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에서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시적 화자 '나'는 평안도의 어느 금광 지역에서 보았던 한 여인의 삶을 서사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시에 나타난 여인의 삶을 재구성해 보면, 여인은, 생활고 때문에 돈벌러 나간 남편의 소식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린 딸의 죽음마저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 속에 맺힌 한을 견디지 못해 결국 출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중이 된 여인을, 우연히 어느 절에 들렀던 시적 화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다)는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가)~(다)에는 공통적으로 혈육 간의 관계가 작품 속에 녹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들을 보고, <보기>에서와 같은 공감대를 가질 독자층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24. **[출제 의도] 함축적 의미의 추리**

(가)의 화자 입장에서 그리움의 대상은 '죽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에서처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대상인 '별'은 곧 죽은 자식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산새'는 죽은 자식인 '너'를 비유한 보조 관념이다.

25.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문제에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시적 상황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에서 '초라한 돌무덤 앞에서 잔디를 쓰다듬는' 주체가 '여인과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진 것으로 그려진 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26. **[출제 의도] 시적 상황의 이해**

8연에 그려진 '성탄제 가까운 도시'의 모습은, 오직 '눈'만이 변함없이 '반가운 그 옛날의 것'으로서 내릴 뿐 '옛 것', 즉 소박한 인정이나 전통 따위는 모두 사라진,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서럽게 만드는 삭막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성탄제 가까운 도시'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서술한 ㉯는 8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는 8연, ㉰는 2연, ㉱는 3연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고, ㉲는 '눈'을 과거에 대한 회상의 매개체로 본 서술이므로 (다) 전체의 시적 상황과 일치한다.

27. **[출제 의도] 발상과 표현의 이해**

㉠은 아들을 잃어 외롭고 쓸쓸하지만, 죽은 자식을 상징하는 '별'을 볼 수 있어서 위안을 얻는 시적 화자의 복합적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외로운'과 '황홀한'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은 단순히 대조법을 사용한 문장이다.

*** (28~31) 김세중,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 (언어 지문)**

28.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 서적일수록 원어의 철자대로 쓰는 경향이 강하고 신문 등에서는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쓴다고 했으므로, 외국의 인명은 원어의 철자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진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29. **[출제 의도] 과정의 추리**

외국어가 국어 어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소한 외국어가 국어에 유입된 후, 그것이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져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말이 외국어라는 느낌이 엷어졌을 때 비로소 국어의 어휘로 정착됨을 알 수 있다.

30.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어떤 말이 사전에 '실려' 있다는 말은 한자어 '수록(收錄)되어'나 '등재(登載)되어' 정도로 바꿀 수 있다.

31.**[출제 의도] 정보간의 관계 파악**

한자어는 넓은 의미의 외래어에 포함될 수 있고, 그것은 고유어와 함께 국어의 어휘 체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②와 같이 된다.

*** (32~35) (가) 청산별곡 (나) 사설시조 (고전 시가)**

32. **[출제 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현실적 괴로움과 고뇌로 인해 갈등하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 모두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33.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과 구조 파악**

이 노래는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청산' 노래와 '바다' 노래로 대별할 수 있고, 각 부분이 대응되어 있다. 그런데 '우러라 우러라 새여'는 화자의 괴로움을 명령형 문장(내용상으로는 감탄형 문장)을 통해 드러낸 반면, '믜리도 괴리도 업시'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는 뜻을 평서형 문장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대응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34.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나)에서는 일상적인 사물을 나열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

'창 내고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가 지니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을 사방이 꽉 막힌 방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5. **[출제 의도] 유사한 상황에의 적용**

(가)의 '새'는 화자가 지니고 있는 괴로움과 비애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①에서도 화자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외기러기'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36~40) 이청준 원작 / 김명곤 각색, '서편제' (시나리오)**

36. **[출제 의도] 다른 매체에 적용하기**

S#96에서 '천가'가 '송화'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을 만나고도 왜 서로 모른척 헤어졌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송화'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대답한다. 이에 다시 '천가'가 왜 한을 풀지 못한 채 허망하게 헤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송화'는 간밤에 한을 다 풀었다고 대답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송화'가 동생과 헤어지고 나서 허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볼 수 없다.

37. **[출제 의도] 대화의 양상 추리 및 적용**

㉮에서의 대화를 분석해 보자. '동호'의 말은 '송화'에게 소리를 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화'가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라고 대답한 것은 겸손한 태도로 사양을 한 것이다. 물론 '동호'가 재차 소리를 청하자 '송화'는 소리를 하지만 일단 ㉮부분에서는 겸손하게 사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다빈이가 축제 사회자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사양하는 말을 하려면 ④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8. **[출제 의도] 인물의 태도 추리**

㉠의 다음에 '송화'가 고개를 끄덕인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송화'는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송화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소리를 배운 것으로 볼 때 '송화'는 아버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추리할 수 있다.

39.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

㉡의 바로 앞에 보면 '송화'는 북을 치는 사람이 동생임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시선을 거두는 것은 자기가 동생을 알아본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동생은 이미 '송화'를 알고 찾아온 것이고, '송화'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동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40. **[출제 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보기>의 시에서는 시적 화자를 '송화'로 설정하여, 소리를 위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화자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동호'를 만나 소리를 하고, 다시 또다른 소리를 찾아 떠돌겠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이 중에서 '송화'가 '천가'의 집을 떠나 떠돌게 되는 장면 S#98과 S#99와 연결되는 시구는 ⓔ이다.

[오답 피하기]

ⓐ는 소리를 배우기 위해 소릿재에 오르는 장면이고, ⓑ~ⓓ는 '동호'를 만나 소리를 하는 장면이다.

*** (41~45) 과학 지문**

(가) 문신용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디딤돌'

(나) 맹광호 '개체 복제 불붙여 인류 미래 위협'

41.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 파악**

(가)의 글쓴이는 인간 배아 연구가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14일 이내의 인간은 아직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과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의 글쓴이 역시 인간의 개체 연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전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것은 글쓴이의 기본 관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42. **[출제 의도] 독자의 반응 추리**

<보기>는 결국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입장에서 (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나)의 기본 입장은 인간의 배아 연구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생명 공학 분야의 발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반응은 잘못된 것이다.

43.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의 파악**

문맥적 의미는 문장의 앞뒤의 내용에서 추리할 수 있다. ㉠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했으므로 '경망스런 반응, 지나친 반응'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44.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나)의 글쓴이는 ㉡을 근거로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위험성은 (나)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의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45. **[출제 의도] 의미의 전개 과정 추리**

㉢의 의미 범주는 '단순한 과학이나 의학'에서 '사회 문제'로 그리고 '인류의 문제'로 점차 확대되며 진행되고 있다. 즉 의미가 점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동그라미가 점차 커지는 모습으로 의미의 확대(점층) 과정을 보여 준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의미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의미가 대등하게 나열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46~50) 김구, '나의 소원' (인문 지문)**

46. **[출제 의도] 내용의 사실적 이해**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의 임무를 독립 국가 건설과 바람직한 문화 창달로 보고 있다.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③의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나 '새로운 문화의 필요성'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임무의 일부분임을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출제 의도] 발화 상황의 파악**

연설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일종이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함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는 것은, 자신의 논지를 흐릴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8.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 추리**

'사해 동포', 즉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크고 아름다운 개념임은 글쓴이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구하기에 옳은 이념은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논지를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셋째 문단에서 나라마다 '안으로', '밖으로' 여러 곤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다섯째 문단에서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진술에서 글쓴이는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49. **[출제 의도] 문장의 짜임새 이해 및 적용**

<보기>에서 '나는 □ 을 안다'라는 문장이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하다'라는 문장을 안고 있다. □ 즉 명사 자리에 문장이 삽입되었으므로,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러한 안은 문장의 짜임새를 갖는 것은 ②로서, 이 문장은 '나는 □ 을 바란다'라는 문장에 '그가 행복하다'라는 문장이 삽입된 문장이다. □ 의 명사 자리에 문장이 삽입되었으므로, <보기>와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간식을 먹었다'와 '(나는) 집을 나왔다'가 이어진 문장
③ 주어와 서술어(미치지 못하다)가 한 번씩 나온 홑문장
④ '아침 안개가 산을 채웠다.'와 '아침 안개가 들을 채웠다.'가 이어진 문장
⑤ '햇살이 따가웠다'와 '(나는) 나무 그늘을 찾았다'와 '(나는) 앉았다'가 이어진 문장

50.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행실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 무절제한 생활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타락'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④ : 마음먹은 것이나 말한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

*** (51~55) 작자 미상, '홍보가' (고전 산문)**

51.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글이 판소리이므로 장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공연 장면을 실제로 보면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돈'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시대적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표현 면에서는 언어 유희나 동일 어구의 반복 기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매품을 파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 확인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52. **[출제 의도] 표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은 집안의 '장'과 닭장의 '장'을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연결시킨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④에서도 월매가 이 도령을 지칭하면서 '서방인지 남방인지'라는 표현에서 본래 '서방'은 '書房'의 뜻인데 방향을 뜻하는 '西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어쩔 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
③ 심청이 제수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자반 뒤집기를 하는 듯한' 심 봉사의 행동이 해학성을 느끼게 한다.

53.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의 파악**

홍보는 환자를 얻으러 관가에 갔는데, 호방에게 존대의 표현을 써야 할지 아니면 하대를 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웃는 헛웃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공연히 허세를 부리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4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

'정강말'은 아무 것도 타지 않고 제발로 걷는 것을 농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돈이 무척 아쉽고 급한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은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므로, 말을 타지 않고 걸어 갈테니 그 품삯을 자신에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 **[출제 의도] 인물의 성격 추리**

홍보는 매품을 파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대로 앉아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홍보는 가부장적 권위 의식과 허세를 부리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56~60) 김종수, '우리 미술 여행' (예술 지문)**

56.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셋째 문단에서 '대칭과 완벽'은 중국 자기의 특징으로, '기교'는 일본 자기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과 ②는 둘째 문단에서, ③은 다섯째 문단에서, ⑤는 셋째 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57.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이 글은 한국의 자연 환경이 한국적 정서와 미술의 원천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한국 미술의 선과 형태가 한국 자연 환경의 선과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진술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도 한국 미술의 뿌리가 자연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58. **[출제 의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제시된 그림은 김홍도의 <씨름도>이다. 글쓴이는 한국의 미술품을 '선과 형태'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감상한 것을 찾도록 한다. ⑤에서는 선이 이루는 형태에 해당하는 '윤곽'이 부드럽고 힘참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미술품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답지는 제시된 그림에 대한 감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글쓴이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59. **[출제 의도] 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에서는 한국의 선과 형태를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초가집 지붕', '조선 백자', 생활 문화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 '조선 백자'의 선과 형태를 언급하면서 우리 나라 백자의 선과 형태가 중국·일본 자기의 선과 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예시된 각각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진술한 부분에서는 '초가집의 지붕이 주변의 야산을 옮겨 놓은 모양', '보름달을 닮은 달 항아리' 등의 묘사적 진술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60. **[출제 의도] 관용적 표현의 이해**

우리 문화의 근원과 우리 문화의 바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후 진술로 미루어 보아, 근본이나 바탕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표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의미로 기반이나 바탕이 튼튼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용두사미(龍頭蛇尾) :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③ 대기만성(大器晩成) :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크게 될

사람은 오랜동안 공적을 쌓은 후 능력을 인정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의 서리', '엎친 데 덮친 격'

⑤ 발본색원(拔本塞源) : '(식물의) 뿌리를 뽑고 (샘의) 근원을 막아 버림', 폐단의 가능성을 모두 막아 버린다는 의미.